

최연의 산 이야기 <7> 북한산 6

# 궁궐의 좌향이 조선의 운명을 갈랐구나



북대문인 숙정문과 주산인 북악 사이에 쌓은 도성. 멀리 인왕산이 보인다.

한양(漢陽)이 조선의 도읍으로 선정된 것은 북한산이 조종적(祖宗的) 위치를 차지하는 명산으로서의 위용을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산줄기들이 필요한 곳에 봉우리들로 솟아올라 한양 도성을 이루는 역할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산에서 흘러 내려온 봉우리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도읍을 건설하였는지 풍수지리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으니, 궁궐(宮闈)의 좌향(坐向)과 도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 궁궐의 좌향이 정해져야만 그것을 기준으로 좌청룡 우백호가 정해지고 궁궐과 도읍의 기반시설들의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역성혁명으로 개국한 조선은 새로운 사상인 주자학(朱子學)을 신봉하는 신진사림(新進士林)들이 개국공신들이었기에 불교를 배척하고 주자학의 이념에 맞게 궁궐의 좌향을 정했다. 임금이 남향하고 신하가 북쪽을 향해 예를 갖추는 형식에 따라 좌향이 남향(南向)이 되었다.

좌향이 남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내사산(內四山) 중에서 주산(主山)은 당연히 북쪽에 위치한 북악(北岳)이 되고, 좌청룡(左靑龍)은 낙산(駱山), 우백호(右白虎)는 인왕산(仁王山), 안산(案山)은 목멱산(木覓山)이 되었다. 이 내사산 사이를 도성으로 둘러쌓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에 남대문인 숭례문(崇禮門), 동대문인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인 돈의문(敦義門), 북대문인 숙정문(肅靖門)의 4대문을 냈다. 또 대문과 대문 사이에는 소문을 배치했다. 남소문인 광희문(光熙門), 동소문인 혜화문(惠化門), 북소문인 창의문(彰義門), 서소문인 소의문(昭義門)이 4소문이다.

그리고 멀리 외곽을 둘러싼 외사산(外四山)으로 북쪽과 남쪽에 조산(朝山)인 북한산과 관악산(冠岳山)이, 동쪽으로는 삼국시대의 쟁쟁지역이었던 아차산(峨嵋山),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德陽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남향으로 하는 좌향이 풍수지리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주산인 북악이 바위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울어져 있고, 바위가 인수봉이나 인왕산과 같이 매끈하게 단정하지 않고 깨진 푸석 바위라는 것이다.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이 의지하는 주산이 비뚤어지고 단정하지 않다면, 올바른 임금이 나오지 않고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못난 임금이 배출되며, 간혹 성군이 나왔다고 해도 그 뜻을 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조에 스물일곱 명의 왕이 나왔는데 현군이러 불리는 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둘째는 우백호인 인왕산(338m)이 좌청룡인 낙산(120m)보다 너무 높아 세력이 크다는 것이다. 풍수학에서는 좌청룡은 장손(長孫), 우백호는 지손(支孫)과 여손(女孫)으로 본다. 조선은 장자(長子)가 세습하는 사회였다. 그런데 장손에 해당되는 좌청룡이 약하고 지손에 해당하는 우백호가 강하니, 장손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고 지손이 장손을 몰아내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조에서 장손으로 왕 위에 올랐던 이들은 거의가 단명했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중에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한 임금은 선조(宣祖)와 정조(正祖)인데, 선조 때

는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크게 위태로웠고 정조는 단명했다.

셋째는 손님이 해당되는 안산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주산인 북악이 주인이고 우리나라의 임금이라면, 안산인 목멱산은 손님이고 다른 나라이며 신하가 된다. 안산이 너무 높아 위압감을 주면 신하가 임금을 억누르고 결국에는 임금을 치게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신하에 의해 세 왕이 쫓겨났으며, 다섯 차례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임제 침략의 침을 받았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조선조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풍수지리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학대사(無學大師)는 궁궐의 좌향을 동향(東向)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무학대사가 주장한대로 궁궐의 좌향이 동향이 되면 주산이 인왕산이 되고 좌청룡이 북악, 우백호가 목멱산, 안산이 낙산이 된다. 좌청룡 인왕산이 우백호 목멱산보다 80m 정도 더 높고, 안산인 낙산은 사사산 중에서 가장 낮은 산이므로 신하들에 의한 하극상과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몰락한 왕조의 고승인 무학의 주장은 역성혁명의 주역이며 주자학의 신봉자인 삼봉 정도전에 의해 묵살되고 만다.

그러나 머지않아 신권정치(臣權政治)를 주장해 온 정도전은 그의 주자학 이념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펼 보지도 못하고 왕권강화(王權強化)를 주장하는 이방원(李芳遠)에 의해 처참히 묵살되고 만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자연의 눈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산정엔 '산불 조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감시초소 앞뒤로 두 개, 산 아래에서 초소가 보이는 곳에 또 한 개, 세 개의 깃발이 삼각형을 이루어 멈춤 없이 휘날리고 있었다. 붉은 깃발이 퍼덕이는 소리가 산정을 흔드는, 초소 앞에 서서 보니 옥동천 상류지역이 펼쳐졌다. 꾸물꾸물 기어가는 강줄기 따라 강변에 자리잡은, 논밭과 사람의 집이 웅기쭈기 모여 앉은 모습이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같다.

"면사무소에서 귀찮게 굴진 않냐?"  
"일주일에 한 번 일지 감사를 받으러 가는 거 빠진 별다른 일은 없어."  
다행이다. 자라나는 자식 들만 아니라면 산불 감시원으로 나서진 않았을 사람이다. 산골짜기에 박혀 살면서 세상 흐름과는 거의 무관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성싶다.

나이 오십이 말해주는 것인지, 상연이도 이전 늙어가는 티가 얼굴에 묻어 있다. 잔주름이 드러나고 푸석푸석해진 얼굴을 보고 있으니, 윤기가 흐르고 뽕뽕하던 23년 전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뒤편을 바라보니 단양으로 내려가는 남한강 줄기가 제법 품을 넓다랗게 열며 흐르는 '맛밭' 이란 곳이 보인다. 정성에서 내려온 때론들이 땀땀을 멈추고 술 한 잔 마시며 쉬어가던 곳이라고 하나, 그날의 정경은 내가 선 곳과 맛밭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손에 잡히질 않는다. 그곳에서 가까운 작은 골짜기 속에 상연이의 집은 있다. 그리고 보니 내 집과 상연이의 집 중간쯤에 산불감시초소가 서 있는 셈이다. 내 집도 산에 가려 보이지 않긴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중간 지역에 있는 모양새다.

상연이가 차를 타주겠다고 플라 스틱 물병을 들고 감시초소로 올라간다. 사람 키만큼의 높이로 쇠기둥을 네 개 세운 뒤 그 위에 육각형의 집을 올렸다. 따라 올라가 보니 사람 하나 웅크리고 누울 정도의 크기다. 사방으로 유리창이 나있어 의자의 방향만 틀리면 사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무전기 한 쪽에 놓여 있고 책도 몇 권 쌓여있다. 때가 잔

뜩 긴 가스레인지와 재떨이도 보였다. 초소 안에 들어서니 바람 하나 막아줄 뿐인데도 안온한 느낌이 번져온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이었을까? 안에서 밖을 보니 나가고 싶다.

커피가 담긴 잔을 들고 초소에서 내려와, 앉아있던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한 달 전쯤에 샀다는 라디오에선 남녀의 수다스런 이야기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바람소리에 섞여 날아간다. 라디오 옆의 망원경이 흘러지는 라디오의 말들을 바라보기라도 하는지 텅그러나 맞은 편 산을 향해 눈길을 주고 있다.

"몇 시까지지?"  
"어, 이제 다 됐어. 다섯 시에 같이 내려가자."  
도시락 가방을 챙기는 (15년 남짓, 가깝게 지내면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상연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산 아래 강변 마을을 다신 못 볼 것처럼 바라보았다. 언뜻, 평화롭고 포근하게 보였다. 다닥다닥 붙은 저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먼 거리인가를 그만 잊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비록 잠시일지라도 인간의 시선을 내려놓고 나무나 구름 혹은 바람의 시선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일렁였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전쟁과 이웃들 간의 다툼으로 피비린내가 깔린 인간세상도 자연의 눈으로 본다면 끔찍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척척한 세상을 하얗고 노랗고 붉게 물들이며 꽃이 피듯이, 피와 살이 튀는 이 세상의 아귀다툼이야말로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혹은 우주에 끝없이 던지는 꽃송이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병들고 늙고 죽어도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꽃송이들 중 하나임을 부정하고 싶지가 않다.

■유승도 (시인)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http://www.shcandle.net)

수공예 양초

한봉밀납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를 물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밀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G·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 탕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는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적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80062 (주)한대불교신문사